

‘청소년 정신건강치유센터’ 조기가동

市 교육청, 9월부터 돌입...내년 1월 정식 개소
지역 초·중·고교생 전문적 마음치유·지속 관리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정신건강 상담과 병원 입원 치료 연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정적 인식과 ‘병력이 남는다’는 문제로 정신과적 치료와 입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학생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신

건강치유센터’를 운영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 연간 100여명 정신건강 호소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연간 광주지역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정신건강 치유센터 관련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 11억8천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 옛 과학교 폐교 시설을 활용해 내년 1월 정신건강치유센터를 개소한다.

이곳에는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실, 활동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초·중·고교생과 청소년의 학업과 치유를 지원한다.

◇9월부터 학교 방문 시작
광주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생활 교육의 어려움과 학생의 정신건강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정신과적 치유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건강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신건강치유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하기 이전에 정신건강 치유의 도움이 시급한 학생들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학교 방문을 통한 학생정신건강 상담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다음달 안에 학생정신건강 상담 및 병원 입원 치료 연

계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과 정신보건 상담사, 간호사 등을 채용해 위기 상황의 즉시 개입과 맞춤형 상담 및 교육-치료연계 시스템을 갖춘 계획이다.

당분간 ‘정신건강치유센터’ 운영을 맡은 시교육청 은태옥 장학사는 “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상처받고 있는 학생을 따

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전문의의 채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은 “숙원사업이었던 정신건강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상처 받은, 마음 아픈 아이들의 치유에 미흡함이 해결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우리지역과 타시도의 정신건강 치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유능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전남도교육청은 24일 목포해양대에서 중국과 일본을 향한 선상무지개학교 국제항해 출항식을 갖고 12일간의 체험활동에 들어갔다.

선상무지개학교 12일간 국제항해 출항

도교육청, 목포→중국→일본→목포 일정

전남도교육청 선상무지개학교 참가자들이 12일간의 국제항해를 시작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220명이 이날 목포해양대 실습선 2척을 이용해 국제항해에 나섰다.

올해로 7번째인 이번 여정에는 학생 20명, 교원 및 운영요원 36명, 승조원 60명, 선상 안전요원 10명 등 총 330여명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선상무지개학교는 이날 목포에서 출발해 중국(상하이), 일본(후쿠오카)의 경로를 거쳐 다음달 4일 목포에 도착한다.

선상무지개학교의 운영은 인류 평화와 공존의식 함양을 통한 글로벌 리더 역량 신장과 학생 자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역량 개발로 인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항해를 위해 선상무지개학교는 지난달 9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참여 학생들도 같은 달 16일 해양안전교육원에서 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2일 목포해양대에서는 참여 학생과 학부모, 교원, 도교육청과 목포해양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선상무지개학교 입교식을 갖고 적응

교육 등 국제항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입교식에 이어 이틀간은 적응교육 시간으로 승선신고, 소화 및 퇴선 훈련, 관세법 특강, 한비야 초청 강연, 학생 자치회 구성 등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이길훈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운영기간 동안 체험활동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서로를 배려하는 리더의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선상무지개학교에 협조해 준 목포해양대(조대환 총장직무대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선상무지개학교는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이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옥과고 ‘방과후 학교’ 학생 선택형 운영키로

전남 옥과고는 2017학년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해 여름방학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완전 학생 선택형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희망자에 한해 곡성군과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된다.

학생 선택형은 선생님이 강좌를 탑재하면 학생들이 부족하거나 집중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수능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비중이 커진 국어·수학·탐구영역을 집중 수강할 수 있다.

강좌는 국어·영어·수학·사탐·과탐·음악·미술·체육 분야 등 60여개의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진행한다. 학생들은 60여개의 강좌 중 3개의 강좌를 선택해 집중 수강한다.

학생 선택제는 최소 인원 5명이 신청하면 개설돼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선택한 과목에서 교내 강사가 없으면 외래강사를 채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물리와 경제 과목은 전문성과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할 예정이다.

또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과목은 전문가를 채용해 수업을 한다. 예체능은 밴드·피아노·바이올린·조소·배드민턴·탁구·농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주간·야간 등 주말까지도 수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옥과고 오승우 학생회장은 “국·영·수 외에도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좋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조선대, 베트남 호치민미술대와 교류

매년 학생 10명씩 한달간 파견
문화콘텐츠 관련기업 현장 실습

조선대가 베트남 호치민미술대학과 본격적인 교류에 나선다.

24일 조선대에 따르면 강동원 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총장실에서 호치민미술대학 드영비득 학장과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교수·연구원 및 직원 교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류(어학연수·교환학생·자비학생 등) ▲학술정보·학술자료 및 간행물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상호 발전에 이바지한다.

미술대학도 이날 오전 학장실에서 호치민미술대학과 MOA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학생 교류를하기로 했다.

미술대학은 매년 1월에 학생 10명을 호치민에 파견하고 호치민미술대학도 매년 7월에 학생 10명을 광주에 파견한다.

학생들은 한 달 동안 현지에서 머물며 오전에는 현지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문



강동원 조선대 총장과 베트남 호치민미술대학 드영비득학장이 양 대학간 교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예술 콘텐츠 관련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한다.

한편, 협약 체결을 위해 조선대를 방문한 드영비득 미술대학장과 응구옌 부학장은 이날 조선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았으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산업 관련 업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양림동 등 광주의 문화 명소를 탐방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과학관, 물체험장 개장 ‘2030미래도시 특별전’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21일부터 한달간 물체험장을 운영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물체험장에는 0.9m높이의 청소년폴과 0.7m 높이의 유아폴이 있어 관람객들이 연령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위실, 탈의실, 테이블,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물 체험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3천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여름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과학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물체험장 외에도 ‘2030 미래도시 특별전’, ‘호남 기상·기후 스텝프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호텔급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델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융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